



10년의 내공으로 승부하는 기업용 솔루션 대표주자

직원들이 다함께 마라톤을 뛰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며, 한 달에 한 번씩 피자 파티를 여는 회사. 'MCI정신'이라는 독특한 경영철학을 앞세운 박동훈 대표가 이끄는 닉스테크의 모습이다. 최고의 기업용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Jump up 2005'를 선포한 박대표의 경영 이야기가 펼쳐진다.

닉 스테 크 _ 박 동 훈 대 표



박동훈 대표의 추천 도서 <끝없는 도전과 용기>

방대한 독서량을 자랑하는 박동훈 대표가 추천하는 책은 잭 웰치의 자서전 <끝없는 도전과 용기>이다. GE의 CEO로 취임한 이후 GE의 시가총액을 40배 가까이 키운 '경영의 신(神)' 잭 웰치가 직접 쓴 기업경영에 관한 책으로 GE에 입사한 과정, 마침내 CEO가 되어 단행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잭 웰치의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박대표에게 큰 도전을 준 책이다.

기

업용 솔루션 개발업체인 닥스테크에는 최근 잇달아 낭보가 들려오고 있다. 삼성 전 계열사 EHR시스템을 도입하는 큰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고 잇달아 하

이닉스반도체 BI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연초에 출시한 통합PC보안솔루션 SafePC Enterprise와 패치관리솔루션 SafePatcher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GS인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되었는가하면 지난해에 비해 신용등급이 한단계 상승하는 경사까지 겹친 것이다. 세 가지 사업분야가 균형을 맞추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닥스테크의 성공 원동력은 무엇일까? 박동훈 대표는 직원들의 충성심, 애사심, 결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주없이 말한다.

호된 신고식, 10년 역사의 밑거름

아무런 준비 없이 감행한 창업이 10주년을 맞게 될 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박대표는 그동안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견뎌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IT업종에 근무하던 그가 회사를 박차고 나온 이유는 인터넷 패러다임 혁명의 중심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1995년, 머지않아 일종의 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본능적으로 예감한 그는 창업의 길을 선택했다.

“젊은 혈기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다들 극구 만류하거나 성공 여부를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죠. 아내와 상의 끝에 1~2년 안에 사업이 망하면 그때 취업해도 늦지 않으리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 것이 어 느덧 10년이 됐습니다.”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조차 모르던 박대표의 막무가내식 창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퇴직금, 적금 등 수종의 돈을 다 털어 모은 돈이 5천 만원. 당시 IT산업이라고 하면 DB구축이 대부분이었지만, 공학도 출신인 박대표는 웹에플리케이션 서버 구축에 도전했다.

하지만 경영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창업 4개월 만에 자본은 바닥이 났고 당장 직원들 월급을 챙겨 주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은행에 찾아간 박대표는 담당자로부터 핀잔을 듣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과 상호 맞보증을 서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게 됐다. 신기하게도 월급날이 코앞으로 닥쳐 납품 건이 생기면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업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확실하게 깨닫는 호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한 닥스테크는 BI사업, 보안사업,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추진하며 지금껏 성장해 왔다. 창업 초기부터 줄곧 3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역량이 분산되는 면도

있었지만, 리스크 역시 분산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자평한다. 현재까지도 네트워크 기반의 IT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M C I 정신이 남긴 자산

닥스테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라톤을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닥스테크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마라톤(Marathon)은 박대표가 강조하는 경영철학 'MCI정신'의 M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계발, 인내, 끈기와 일맥상통한다. 직원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이 정신을 적용해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쉬 없이 질주하고 있다.

C가 의미하는 것은 기여문화(contribution)이다. 회사는 주주, 직원, 고객을 모두 만족시키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박대표의 소신이다. 미국 유학생활을 통해 체득한 미국의 나눔정신을 동경했던 그는 창업 초기부터 이 정신을 실천해 왔다. 한사랑벤처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직원들의 월급 중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다.

MCI정신의 마지막 I에 해당하는 개혁과 변화(Innovation)는 외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닥스테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 닥스테크를 이끌어오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일례로, 최대 파트너였던 HP가 2002년도에 미들웨어 사업을 철수하면서 닥스테크는 하루아침에 파트너를 잃게 됐다. 직원의 30%가량이 회사를 떠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개혁과 변화 마인드를 가지고 후속사업으로 전환한 결과 닥스테크는 험난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영 10년’이라는 고지를 달성한 박동훈 대표는 후배들에게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으로 책임감을 꼽는다.

“CEO에게 가장 필요한 건 책임감을 지켜내는 겁니다. 직원이 70명이려면 그들의 가족까지 감안해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장사꾼과 기업가의 차이점이지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숙한 기업가로 변신한 박동훈 대표에게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패기와 도전의식으로 일궈낸 오늘의 성과는 앞으로 10년 후, 그리고 그 이후의 닥스테크를 존재케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닥스테크의 화려한 도약을 이끌어낼 박동훈 대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